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2.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런던서 개최된 유대주의 지지 집회에 5만명 참가
 - 11.26 영국 런던 경찰은 반유대주의 반대 집회에 약 5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, 현지 언론은 독일에서 나치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36년 이후 런던에서 열린 최대 규모 반유대주의 반대 시위라고 언급
 - ※ 한편, 同 집회 하루 전인 11.25에는 親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런던에서 가자지구 내 영구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, 런던 경찰 추산 약 4만5천 명이 참가
- 벨기에, 학교 폭파테러 위협에 30곳 휴교 조치
 - 11.27 언론은 벨기에 도심의 학교를 대상으로 출처 미상의 폭파테러 위협이 접수되어 교육부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브뤼셀과 남부지역 학교 30곳에 대해 휴교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
 - ※ 최근 벨기에 내 학교 대상 폭파 테러위협에 학생이 대피하거나 휴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, 현재까지 대부분 허위신고였다고 부언

미주

- 美,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 3명 '묻지마 총격'
 - 11.27 언론은 팔레스타인계 미국 대학생 3명*이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으며, 경찰은 하마스 전쟁 이후 反이슬람 정서 확산에 따른 증오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* 피해자 3명 中 2명은 미국 시민권자, 1명은 합법적 체류자였으며, 피격 당시 중동 전통의상인 터번을 쓰고 있어 증오범죄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부언
- 美, 하마스로 유입되는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제적 태스크포스 구성
 - 11.28 외신은 미국이 하마스로 유입되는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세계 각국과 금융정보 공유를 강화하고, 대테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태스크포스(TF)*를 구성하였다고 보도
 - * 미국, 프랑스, 독일, 이스라엘, 호주, 캐나다, 스위스, 뉴질랜드, 네덜란드 등이 참여하며, 금융정보부서·공공기관·민간부문간 협업 강화를 통해 테러 위협 대응능력을 제고

아 · 태평양

○ 제주지법, 5개 공항 폭탄 설치 협박 남성 실형 선고

- 11.23 제주지방법원은 제주·김해·대구·인천·김포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

※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막대한 공권력 낭비와 업무 방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

중 동

○ 이라크, 미국의 자국내 親이란 세력 공격에 주권 침해 반발

- 11.22 이라크 정부는 미국이 자국내 親이란 세력을 공습한 데 대해 “이라크 정부가 알지 못한 채 감행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한다”며 “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역내 안보 안정을 해치려는 시도”라고 성명 발표

※ 11.22 美軍은 ‘카타이브 헤즈볼라’의 지휘통제센터 등을 공격해 무장대원 8명 사살

○ 이스라엘-하마스 ‘전투중지’ 기간 2일 연장 합의

- 11.28 언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초 4일간이었던 ‘전투중지’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휴전간 이스라엘은 70명, 팔레스타인은 210명의 인질을 각각 돌려받게 되었다고 보도

※ 지난 24일 최초 합의간 전투중지 1일 연장시 이스라엘은 10명, 팔레스타인은 30명의 인질을 돌려받기로 양측 합의 완료

○ ‘트론’ 중동 무장단체가 선호하는 가상화폐로 부상

- 11.28 언론은 이스라엘 국가대테러조달국이 ‘21. 7월부터 ‘23. 10월까지 지정테러조직과 연계 또는 테러범죄로 사용된 ‘트론*’ 가상화폐 지갑 143개를 식별하여 사용금지 시켰다고 보도

*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

알샤바브, 소말리아 모가디슈市 호텔 테러

- '22.11.27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市 중심가 호텔에서 무장괴한들이 호텔*을 공격하고 인질극을 벌여 민간인 8명 살해
 - * 대통령궁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, 현지 의원·관리들이 자주 방문
- 사건 당일 20시경 괴한들은 폭발음을 내고 총탄을 퍼부으며 호텔로 난입하였으며, 수십 명을 인질로 잡고 18시간 동안 인질극 전개
- 소말리아 보안군은 '진압 작전을 전개해 괴한 6명 중 5명을 사살하였으며, 나머지 1명은 자폭하였다'고 발표
 - * 보안군은 인질 약 60명을 구출하였으나, 그 과정에서 보안군 1명도 사망
-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同공격의 배후를 자처
 - 특히, 소말리아에 새로 수립된 정부가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선포하자, 알샤바브는 민간·군사 시설물에 대한 공격 수위를 강화

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내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영국·캐나다('10.3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우마르」, 副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쏘域 및 케냐내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모가디슈 시청 회의실 자폭 테러(시장 등 고위간부 8명 사망)
 '18.11 모가디슈 내무부 청사 차량폭탄·총격 테러(사망 58명, 부상 106명)
 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

